

프린스 호텔 흉물 방치 광주 관문 미관 해친다

끝없는 경매 분쟁 ... 정상 운영 불투명

광주의 주요 관문인 서광주 IC 주변에 위치한 옛 프린스 호텔이 흉물로 전락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매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원 소유주가 낙찰자를 비롯한 경매 참가자 등 4명을 상대로 최근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분쟁도 끊이지 않아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아파트 맞은편 3천400여㎡ 부지에 자리한 연면적 1만900여㎡ 규모의 옛 프린스 호텔 주변에는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쌓인 낙엽이 쌓여가는 등 '거대한 흉가'로 변해 있었다. 건물 외부는 구멍이 송송 뚫린 회색의 대형 천으로 가려진 채다. '공사금을 돌려달라'거나 '경매 입찰 담합 의혹을 해명하라'는 등 10여개의 현수막이 내걸려 쓸쓸한 모습이 짝이 없었다.

옛 프린스 호텔은 2년 전 원 소유자가 호텔을 아웃렛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한 건축업체에 맡겼으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채권자들에 의해 호텔은 감평가 116억여 원에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으며, 4차례의 유찰 뒤 지난 3월 47억3천여만 원에 광주 S교회로 넘어갔다.

그 사이 이 건물은 별다른 보호막 없이 낡은 천으로 둘러 싸인 채 흉물로 방치돼왔다. 도심 주요 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해 광주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건물이지만 장기 방치되면서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물을 인수한 S교회 측은 호텔 일부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소유자가 경매 과정의 의혹을 제기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데다 건물 리모델링을 한 건축업체가 교회를 상대로 공사비 3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건물의 정상 운영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이 업체는 현재 유치권(留置權: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을 관해 생긴 채권의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교회측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예순(여·59)씨는 "매일 이 호텔 뒷길을 통해 출근하는데 지저분한 것은 돌쳐치고 밤에는 무섭기까지 하다"며 "하루빨리 건물이 정상화돼 이곳 주변이 정돈되고, 인근 상가도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호텔은 1989년 74개의 객실과 나이트클럽, 웨딩홀 등을 갖추고 문을 열어 야구선수들의 단골 숙소 등으로 성업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으로 2007년 4월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1월 폐업 신고됐다.



광주의 주요 관문인 서광주 IC 주변에 위치한 옛 프린스 호텔. 고속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길목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은 물론 광주의 첫 인상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4일 한국기원 광주지부에서 열린 '제18회 광일(光日)배 직장 바둑대회'에 참여한 동호인들이 대국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양 포스코팀 단체전 우승

제18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개인전 박광주씨 2연패

광양 포스코팀이 광주일보 주최 '제18회 광일(光日)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포스코팀은 24일 한국기원 광주지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 10승을 거둬, 송림(9승)을 2위로 밀어내고 패권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16면〉

포스코는 주장 박광주(52·이하 아마 5단)·정장효(43)씨가 4전 전승, 김홍섭(47)씨가 2승을 거두는 등 모두 12개 대국에서 2패만을 기록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지난해 3위, 제16회 대회 4위를 차지하는 등 광일배 강팀

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송림(김광식·이창준·고재준)은 9승을 합작, 2위를 차지했다. 광주 시청(허우석·이상, 백동원)은 8승을 기록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지부와 동률을 이뤘지만 대회 규정상 승점에서 앞서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포스코의 박광주씨가 같은 팀 정장효씨를 187수 끝에 불계로 꺾고, 2년 연속 우승했다. 공동 3위에는 고재준(송림)·허우석(광주시청)씨가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광주교도소, 광주변호사회, 농협, KT 등 10개팀 3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대 옛 경영인측

정상화추진위 발족

조선대학교 옛 경영인측 인사와 현직 조선대 교수 등이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족식 발표문을 통해 "조

선대가 대학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면서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조선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사법대 이용보 교수와 공과대 박영석·김수인 교수, 외국어대 추영식 교수 등 현직 교수 4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채희경기자 chae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2분 해질 19시 37분 달돋이 05시 28분 달질 20시 47분

빈소 쓰디드는 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14/29°C
목포	맑음	13/24°C
여수	맑음	15/23°C
완도	맑음	13/26°C
구례	맑음	12/29°C
해남	맑음	12/26°C
장흥	맑음	13/27°C
장흥	맑음	12/26°C
순천	맑음	15/27°C
영광	맑음	12/25°C
진도	맑음	12/25°C
전주	맑음	13/28°C
남원	맑음	11/28°C
옥산도	맑음	13/21°C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4/30	15/29	14/30	15/30	15/28	14/28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양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처 061-262-1114 / 대학은 061-1115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내버스 3개 노선 확충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6월10일)을 앞두고 다음달 7일부터 송암17번, 금남55번, 봉선75번 시내버스가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까지 연장되는 등 노선이 일부 조정된다.

광주시는 24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송암17번은 광천터미널과 광주역을, 금남55번은 광주역과 지하철을 연계해 노인건강타운까지 연장 운행키로 했다. 봉선75번은 노대~노대 구간을 순환하는 기존 노선

을 노인건강타운을 경유하도록 노대와 덕남으로 가·종점을 분리했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자의 수요와 편의 향상을 고려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이용 상황을 보고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까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첨단95번과 진월77번, 진월177번 등이다. /윤철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송림점: 061-752-9948
옥포점: 061-262-9260
속칭점: 061-227-9970
리산점: 061-851-2422

7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대한항공·대한항공·신세우도 - 세박을 경험하며 더욱 저렴하게 다녀오세요!!

역사미나 탐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상품가: 제주도 여행 상품 3박 4일 319,000원 -
기간: 2009.05.14 - 07.14 (기간 연장가능)

새롭고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여행상품

- 1. 제주항공(061-100) - 제주항공 NINA USA주 제1호 비행기
- 2. 제주항공(061-100) - 제주항공 NINA USA주 제1호 비행기
- 3. 제주항공(061-100) - 제주항공 NINA USA주 제1호 비행기
- 4. 제주항공(061-100) - 제주항공 NINA USA주 제1호 비행기

KBS 1박2일 "올레길" 촬영
모적리조트, 해피타운, 독립공원, 신내의 나무꾼, 일출랜드, 올미세정, 일출정원 전시관

여행상품 상세이: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